

보도일시 (인터넷) 2025. 7. 7.(월) 11:00,
(지면) 2025. 7. 8.(화) 조간

배포 2025. 7. 7.(월) 06:00

스마트 항만장비, 기술개발 착수

- 국내기술 중심의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해 항만장비 핵심 부품·기술 개발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항만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화 항만장비의 핵심부품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 기술개발(2025~2028, 310억 원)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안정과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의 스마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4월 개장한 부산항 신항 완전 자동화 터미널*을 시작으로 스마트항만 구축이 본격화되었으며, 관련 기술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스마트항만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화물을 선박에서 육지로 내리는 하역부터 항만 내에서의 이동, 보관 그리고 항만 밖으로의 반출까지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물류 처리 과정 전반이 자동화된 항만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기술 중심의 항만장비 도입을 통한 ‘한국형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총 310억 원을 투입하여 자동화 항만장비의 핵심부품과 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동 사업은 자동하역장비와 무인이송장비의 핵심부품 개발을 통한 국산화 지원과 무인이송장비의 자율주행 기술 및 제어·운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국내 스마트항만에 도입을 목표로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은 항만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산업이다”라며, “국내 스마트항만의 안정적인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항만국	책임자	과 장	손원권 (044-200-5930)
	항만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김범준 (044-200-5933)